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싱그러운 5월 즐거움 가득’ 보성다향축제와 가볼만한 곳

차밭 · 한국차박물관 · 붓재 · 제암산자연휴양림 · 비봉공룡공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제44회 보성다향축제가 '차주소풍'이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민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차밭, 차만들기, 차마시기 등 길러 콘텐츠를 확장해 축제의 명품화와 브랜드 이미지 혁신에 중점을 두고 차문화 체험·전시·경연, 차마켓, 공연 등 총 8개분야 50여종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군은 다향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과 함께 차밭, 한국차박물관, 붓재, 제암산자연휴양림, 울포술밭해수욕장, 비봉공룡공원 등을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했다.

세계질 푸르른 '보성차밭'은 수십만 평에 이르는 차밭이 그림같은 풍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어 보성을 여행하는 사람은 한번은 꼭 들르는 명소이다.

축제기간 중 붓재 길은 차밭에서 물오른 차잎을 따는 차잎따기 체험

과 연계해 '차 만들어 보는 곳'에서 나만의 햇차를 만드는 힐링체험을 할 수 있다.

전해의 차밭 경관을 갖춘 한국차차도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차문화를 비롯하여 차와 관련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축제기간 중 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상상하는 박물관 나들이, 차를 이용한 음식, 뷰티, 건강 기능식품 등 다양한 체험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차문화 체험마켓이 진행된다.

'붓재'는 보성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보성의 역사와 문화, 예술 그리고 날로 변화되고 있는 차산업과 차문화를 보여주는 곳으로 보성차를 원료로 한 다양한 블렌딩차와 청정 보성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축제장과 연결하는 인포킹크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축제정

보를 제공하고, 2층 전시홀에서는 보성 제정명 전년을 기념해 열리는 무형문화재 김기찬 선생의 낙죽장 전시회가 열린다.

체험·휴양·힐링의 명소인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어른 및 어린이를 동반한 나들이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5.8km의 무장애 산악트레킹로인 '더늘길'과 숙박동, 몽골텐트, 어드벤처 모험시설, 질리안 등을 갖추고 있어 연휴기간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울포술밭해수욕장'은 시원한 소나무 숲, 은빛모래 해변과 수평 60여년 된 시원한 해수 숲,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갯벌을 자랑하고 있는 명품 해수욕장으로, 인근의 울포해수욕장은 지하 120m의 암반층에서 끌어올린 해수와 파부미용 및 건강에 좋은 보성 녹차를 테마로 세계질 각광받고 있다.

별교읍에 위치한 태백산맥 문화관은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의 첫 장면인 현부재 집과 소화의 집이 있는 제석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단일 문화작품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특리면 비봉리 일원에 위치한 '보성비봉공룡공원'은 전국 최초로 4D 멀티미디어 쇼 공연과 움직이는 전시 연출, 공룡가 등을 갖추고 관광객의 호감을 자극하고 있다.

비봉공룡공원 주변에는 비봉마리나, 특리면 선소낙수공원 등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해양레저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

2018년 2개소 · 2019년 2개소 추가

고흥군은 농식품부 주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예비계획서 신청 등 본격적인 공모 절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대단위 종합 산업단지로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7월말 2개소, 2019년 2개소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5월 25일까지 시군별 예비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평가 를 거쳐 최종 시군을 선정하고 7월 13일까지 공모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혁신밸리 조성규모는 개소당 20ha기준으로 단지내 세부시설은

스마트팜 단지(10ha), 임대형 스마트팜(7.5ha), 보육센터(1.5ha), 산지유통센터(1ha), 테스트베드(4ha) 등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총사업비는 부지조성비는 별도로 1,800여 원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축산과 내 스마트팜 혁신밸리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반드시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농부총재본부장

구례군, 청소년수련원서 지진대응 현장훈련 실시



구례군은 18일 오후 2시 구례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민·관·군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진복합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례경찰서, 순천소방서 구례119

안전센터,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및 기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구례군 산동면에 규모 6.0의 강진으로 청소년수련원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협업기관·단체 간 공조체계와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관광광역시 문흥중학교 학생 150명이 지진대피훈련에 참여하여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재난 약자인 청소년들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훈련을 통해 실제 지진 발생 시 침착하게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제19회 '장성 흥길동 축제' 화려한 광파르

제19회 '장성 흥길동축제'가 18~20일 황동강변과 흥길동테마파크에서 열린다.

하군의 소설 '흥길동전'의 주인공 공으로 잘 알려진 흥길동은 부패한 관료와 탐관오리로부터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 조선시대 실존인물이다. 장성군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을 고고해 흥길동이 장성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뒤 매년 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장성군은 개막일인 18일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개막행사를 여는 대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와 '화려한 휴가'를 상영한다.

둘째 날인 19일부터 '뽀빠이와 함께하는 멜로 콘서트' 등 22종의 체험 프로그램, '야생화전', '백양 분재 작품전', '공중 전시' 등 8종의 전시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1시에는 올해 '흥길동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에서 열린다.

영광=서희원 기자

함평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무상지원

함평군이 오는 24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256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1천6백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전관리인증(HACCP) 업

체인 산계농업협동조합이 과일 가공을 맡아, 관내 11개 초등학교 256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2회(화요일, 목요일) 연간 30회에 걸쳐 과일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관중 친환경농산과장은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 공급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

획"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제철 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 컵이나 파우치 등의 간편한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함평=김광훈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긴장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